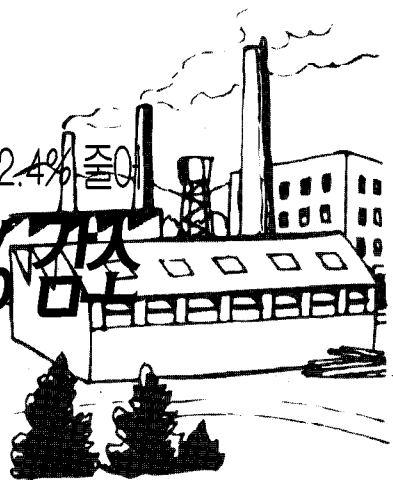




'95 국내농약 생산 출하 개요

생산량 4% 늘고 출하량은 2% 감소

수출액 18% 증가에 수입액은 2.4% 줄어



생산출하상황

1995년도 국내 농약생산량은 2만6천6백76톤, 출하량은 2만5천8백34톤으로 94년에 비해 생산량은 4.0% 늘었고 출하량은 1.7% 줄었다.

또 농약매출액은 5천9백37억원으로 94년의 5천7백9억원보다 4.0% 증가했다. 이같은 통계는 최근 농약공업협회의 최종집계에 따른 것이다.

95년도 농약생산량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수도용 4천9백62톤(전년대비 2.2% 감소), 원예용 1만2천6백50톤(“3.3% 감소), 제초제 5천7백57톤(“7.9% 증가), 생장조정제 및 기타 3천3백7톤(“52.5% 증가)으로 나타났다.

제형별로 농약생산량을 살펴보면 유제가 1만5백90톤으로 전체의 39.6%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수화제 8천4백22톤(31.5%), 입제 5천1백13톤(19.2%) 순이었다. 수화제는 전년도에 비해 15.5%가 감소한 반면 유제와 입제는 각각 16.5%, 8.6% 증가했다.

출하량을 약제별로 살펴보면 살균제 7천9백9톤(30.6%), 살충제 8천8백92톤(34.4%), 제초제 5천8백17톤(22.5%), 생장조정제 및 기타 3천2백16톤(12.4%)이었다. 전년도에 비해 살충제, 제초제, 생장조정제 및 기타가 각각 11.2%, 5.6%, 21.0% 늘어난 대신 살균제

는 21.8% 감소를 보였다.

이를 더 세분해보면 수도용 살균제는 1천9백82톤, 살충제는 2천8백85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21.8%, 3.2% 감소했다. 원예용 살균제는 5천9백27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21.9% 감소한 반면 살충제는 6천7톤으로 19.7% 증가했다. 제초제는 논잡초약이 2천3백28톤, 밭잡초약 및 과원잡초약 등이 3천4백89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8.3%, 4.0% 늘어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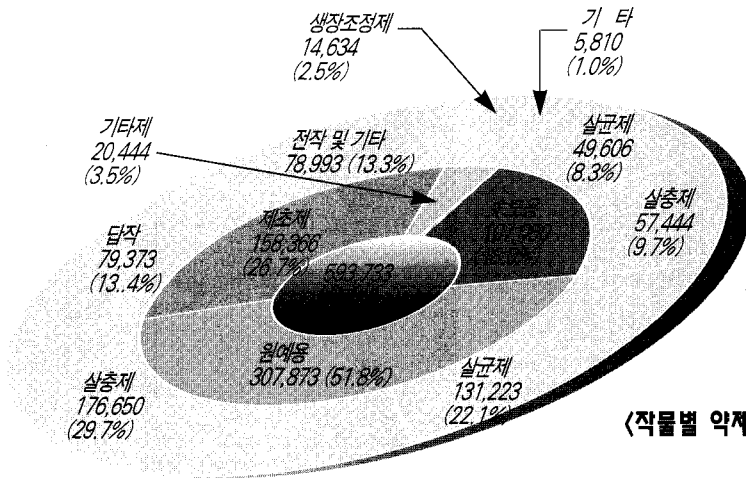
수출입상황

95년도 농약수입액은 전년도 3억1천2백50만\$보다 2.4% 감소된 3억4백93만\$였다. 그중 원제가 68%인 2억8백77만\$, 합성원료는 27%인 8천3백50만\$, 완제품은 4%인 1천2백65만\$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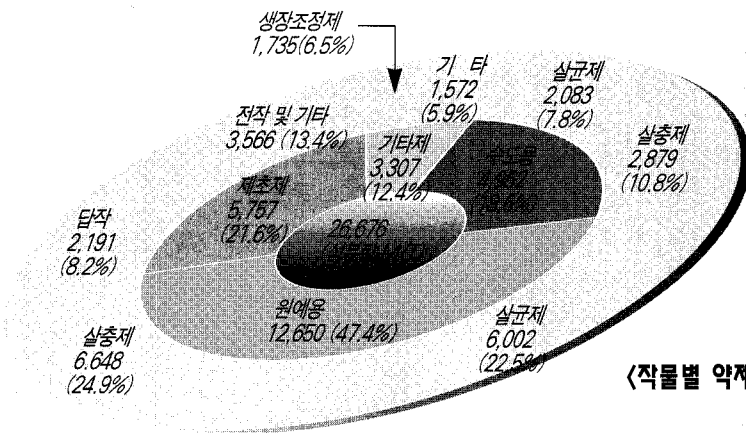
원제 2억8백77만\$중 살균제는 7천94만\$, 살충제 8천9백91만\$, 제초제 4천5백14만\$, 기타가 2백79만\$였다.

수입국별로는 일본에서 6천6백14만\$(32%), 독일 5천85만\$(24%), 미국 3천94만\$(15%)로 이들 3개국에서 총수입액의 71%를 차지했고 나머지 29%가 프랑스 등 20여개국에서 수입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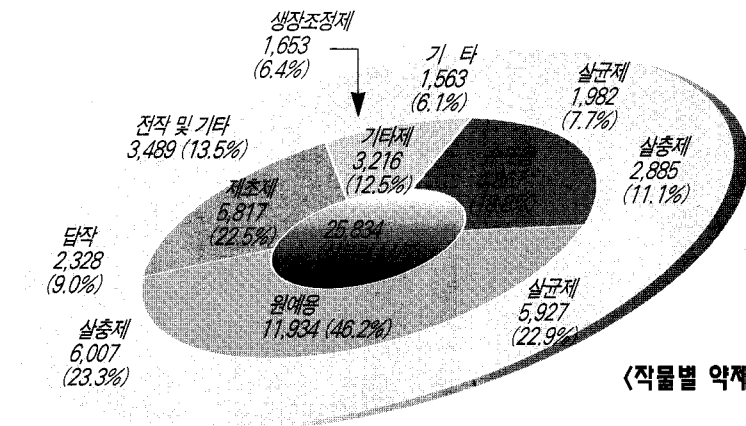
한편 국내합성원제는 1천3백48억원(1억7천2백81만\$)으로 총 원제수요 2천9백76억원(3억8천1백58만\$=수



〈작물별 약제별 매출액 구성비〉



〈작물별 약제별 생산량 구성비〉



〈작물별 약제별 출하량 구성비〉

입 2억8백77만\$ + 국내 1억7천2백81만\$)의 45%로 국산 원제 비중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다.

95년도 농약수출은 5천8백26만\$로 94년의 4천9백32만\$보다 18.1% 증가했다. 그중 농약원제는 5천6백14만

\$, 완제품은 2백12만\$로 전년대비 각각 17.7%, 29.3% 증가했다.

수출교역국은 일본(19%), 대만(9%), 이태리(9%), 인도(7%), 프랑스(6%) 등 20여개국이다. **농약정보**